

영적인힘은굴레로부터자유로워지는길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서 영성의 힘을 보고 있었다. 모든 이가 다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은 제각기 아버지에게서 영적인 힘을 가질 완전한 권리를 차지했다. 그렇긴 하되 바바는 너희가 어느 정도로나 성취의 화신이 되었는지를 보고 있었다. 날마다 자녀들 모두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자녀라고 칭하며, 사랑과 기억에 대한 보답으로 입을 통해서나 마음속으로 영적인 아버지에게 사랑, 기억, 나마스테의 형태로 돌려드린다. 너희들은 이렇게 보답한다,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너희 자녀들을 날마다 찾아가 영적인 힘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브라민으로서의 이번 생의 특별함이 영성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영성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와 남들을 변화시킨다. 주된 기반이 이 영적인 힘이다. 너희가 온갖 유형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이 힘을 갖고서이다. 밥다다는 너희가 이미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몇몇 미묘한 굴레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다. 너희는 해방을 얻는 방법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그것은 너희가 모든 행위에서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각, 말, 행위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모두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에서 느슨해지느냐? 너희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강력하게 만들지만, 말에는 힘이 좀 풀려있다. 가끔 너희는 말을 강력하게 하면서 행위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풀어진다.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모두 다 영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해방에 이르는 길이다.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 부양, 파괴의 세 가지 과업이 전부 필수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생각, 말, 행위 세 가지 전부에서 영적인 힘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따금 너희는 마음을 살피고, 그러면 너희의 말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긴다. 그러면 너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 세 가지 모두에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 그럴겠느냐? 이 세 가지 방식 모두가 너희의 완성의 단계와 아버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두에서 영성이 경험되어야 한다. 세 가지 모두에 완전히 지혜로운 이들은 삶 속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밥다다는 미묘한 굴레들을 보고 있었고, 미묘한 굴레라는 면에서도 역시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연관을 가진다.

굴레에 묶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 사람이 항상 남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굴레에 묶인 이는 내적인 행복을 늘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한결같은 행복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물질세계에서 일시적인 편의시설들은 너희에게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내면적인 경험이나 불멸하는 행복에 대한 경험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 미묘한 굴레에 묶인 영혼들은 봉사, 집회의 힘, 이런저런 성취, 고귀한 동반자들을 토대로 이 브라민 생애 단기간 동안은 계속 전진하며 이 방법들(수단들)을 가진 동안에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수단이 끝나면 (또는 제거되면) 그때는 그들의 행복도 역시 끝나고 변함없이 머물지 않는다. 가끔 그들은 대단히 행복해하며 춤출 것이다, 즉 그럴 때는 그들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멈춰 서게 되면 그때는 아주 작은 돌도 산더미처럼 경험될 것이다. 본래의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단들을 기반으로 행복의 춤을 춘다. 일단 수단들이 없어지면 그들이 어디에서 춤을 추겠느냐? 마음속의 영적인 힘이 항상 세 가지 형태 모두로 동시에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된 굴레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너희 스스로의 생각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너희는 남들에게서 영향 받는 것을 경험한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굴레에 묶인 자들은 오랫동안 이것으로 바쁘다. 너희는 공중누각을 짓는

데 대해서도 얘기한다. 너희들은 성을 짓고 나서 그걸 부순다. 너희들은 거대한 벽을 세운다. 그래서 그것은 허공 속의 성 또는 누각이라고 불린다. 신봉의 길에서 그들이 신상들을 숭배하고 치장한 다음에 그것들을 물 속에 가라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의 굴레에 묶인 영혼들은 많은 것들을 짓고 나서 그것들을 많이 망가뜨린다. 그들은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실증이 나고 또 낙담한다. 때로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실수에 대해 남들을 비난한다. 그러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교만에 영향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남들을 탓한다. 제일 큰 굴레는 지각을 잠그는 마음의 이 굴레이다. 그래서 너희가 설명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굴레에 묶여 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징표는 인지하는 힘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묘한 굴레를 끝내지 않고는 너희가 내면적인 행복이나 초감각적인 기쁨을 향시 경험할 수 없다.

합류시대의 특별함은 초감각적인 기쁨의 그네를 타며 끊임없이 행복 속에서 춤추는 특별함이다. 따라서 합류시대에 걸맞게 되고 나서도 너희가 이 특별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것이든 생각의 굴레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낭비적인 생각은 아닌지, 질투나 갈등에 대한 생각의 굴레인지, 부주의함이나 게으름의 생각이 아닌지 등에 대해 너희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이런 유형의 생각들은 마음속에 굴레가 있다는 표시이다.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너희들 중에 해방된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굴레들을 보고 있었다.

굵은 밧줄들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이런 미묘한 실들이 있다. 그것들은 가늘지만 너희를 굴레에 묶는 데 있어서는 영리하다. 너희는 자기가 굴레에 묶여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굴레들이 너희를 일시적으로 도취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없어질 도취감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지 않고, 시궁창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궁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빈손인데도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도취감을 가진 자들도 역시 결코 자기들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런 일은 늘 일어나, 항상 이런데 뭘”이라고 하는 식으로 부주의함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오늘 너희들은 단지 마음의 굴레에 관해서만 얘기를 들었다.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바바가 다른 때 말해줄 것이다. 이해되느냐?

영적인 힘으로 계속해서 해방을 이룩해라. 합류시대에 해방된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삶 속의 해방이라는 미래의 보상을 얻는 것이다. 50주년에 너희는 삶 속에서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그저 50주년을 축하하기만을 원하느냐? 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축하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축하만 하는 반면, 여기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 자 이제는 빨리 준비되어라, 오직 그런 다음에야 너희의 해방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모두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편의시설들의 굴레에 묶여 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구하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으니, 그것은 굴레이다, 그렇지 않으냐? 모든 이를 갖가지 굴레에서 풀어주는 너희들은 먼저 너희 스스로 해방되고 있고, 이제는 모든 이를 해방시켜야 한다. 모든 이가 해방되려고 울부짖으며 소리쳐 부르고 있다. 일부 어떤 이들은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해방을 청하는 똑같은 소리는 모든 이가 내고 있다. 그러니 이제 해방을 주는 공여자가 되어 그들에게 해방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해방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들의 소리가 너희에게 도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냐? 아니면 너희는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그러니 그게 나에게 뭘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느냐? 바바가 말한다: 너희는 보상을 얻어야 하고, 아버지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백성들과 신봉자들을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아버지에게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의 신봉자인 이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동시대에 최초의 신봉자가 될 이들은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제일 먼저 아버지를 숭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지금 너희 모두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해방을 주는 공여자가 되어라. 앗차.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해방을 이루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는 공여자가 되어 변함없이 미묘한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마음속 행복과 초감각적인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를 제일 멀리 전진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모든 이를 해방시키려는 좋은 염원을 항상 품고 지내는 이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그룹들을만나십:

1)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화신이 되는 강력한 영혼들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느냐? 매일 하는 생각에서 너희들 자신과 남들에 대해 열성과 열의로 가득한 생각이 있게 해라. 오늘날 그들은 “오늘의 생각”을 신문에 실거나 인쇄해서 여기저기에 세워둔다. 마찬가지로 열성과 열의로 넘치는 하나의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나오게 해라. 그 생각과 더불어 그것을 너희의 모습 안에 담고 또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에서도 그것을 사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항상 새로운 열성과 열의가 생길 것이다. “오늘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왜 열성과 열의가 생기는 것이냐? 너희는 계획을 세운다, 그렇지 않느냐? “난 이것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걸 할 것이다.” 그것에서 특별한 열성과 열의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암릿 벨라에 특별한 열성과 열의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항상 열성과 열의로 가득할 것이고, 너희는 남들에게도 열의를 안겨주는 이들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느냐? 너희가 오락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흥을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앗차.

2) 너희는 항상 강력하게 기억함으로써 전진하는 영혼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강력한 기억 없이는 경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항상 강력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라. 항상 너희의 힘에 따라 신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며 지내고 봉사의 결실을 받아라. 너희의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부로든 너희가 가진 모든 힘을 계속해서 봉사에 써라. 너희들은 틀림없이 하나에 대해 수백만 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쌓고 있으며, 여러 생을 위해서 쌓아둬야 한다. 한 생에 축적함으로써 너희는 21생 동안 노력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는 이 비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미래를 계속해서 늘 고귀하게 만들어라. 계속 행복해하며 봉사에서 전진해라. 항상 기억하면서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를 갖고 나아가라.

3) 너희들은 기억하는 행복으로 여러 영혼들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자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참된 봉사자란 사랑에 넋을 잃은 채 머물며, 남들도 사랑에 넋을 잃을 수 있게 해주는 이들이라는 뜻이다. 각 장소의 봉사는 제각기 고유하다. 그렇다 해도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이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크나큰 행복의 문제이다. 사실 세속의 저런 학업 등은 모두 없어지는 것들이다. 불멸하는 성취의 수단은 오직 이 지식뿐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경험한다, 그렇지 않느냐? 보아라, 너희 봉사자들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대단한 황금의 기회를 받았다. 이 절호의 기회로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한껏 전진하는 것은 너희의 손에 달렸다. 누구나 다 그런 황금의 기회를 받지 못한다. 오직 수백만 중의 소수만이 그것을 받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정도로 행복을 느끼느냐? 세상의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가졌다. 끊임없이 그 행복 속에 머물며 남들에게도 이 행복을 주어라. 너희 각자가 나아가는 그

정도만큼 너희는 남들도 전진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들이지, 주변을 둘러보다 멈춰서는 이들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와 봉사만이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한결같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항상 계속해서 너희가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라.

바바가직장을가진쿠마리들을만나심:

1) 너희 모두의 목표는 고귀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 양쪽으로 다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이다, 그렇지? 굴레가 있을 때 양쪽 모두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굴레가 없는 영혼들이 양쪽에 다 있다는 것은 매달려 있다는 뜻이다. 일부 어떤 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특별해서 밥다다도 허락해줄 정도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굴레라면 그 경우에는 매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한쪽 발은 여기에 있고 다른 쪽 발은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너희가 한 쪽 발은 이 배 안에 두고, 다른 쪽 발은 다른 배 안에 둔다면 너희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경우에는 너희가 괴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양쪽 발 모두 하나의 배 안에 두어라. 항상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짐으로써 너희는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바바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과제를 행하길 원하든지 다 할 수 있다.

2) 쿠마리들은 합류시대에 특별한 역할을 가진다.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가진 이들로 너희 스스로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아직도 평범하냐? 너희의 특질이 무엇이나? 너희의 특질은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봉사자인 이들은 특별하다. 봉사자가 아니라면 너희는 평범하다. 너희는 어떤 목표를 가져왔느냐? 오직 합류시대에만 너희가 이 기회를 받는다. 이 기회를 지금 잡지 않는다면 너희는 전체 사이클 내내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합류시대에만 특별한 축복이 있다. 세속의 학업을 공부하는 동안 너희는 이 공부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공부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행운을 창출해내며 계속 전진해라. 너희들의 행운에 대해서 도취감이 더 클수록 너희는 더 쉽게 마야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 도취감이다. 계속해서 항상 너희들의 행운에 대해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너희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다.

축복: 행운을 기부해주면서 너희의 약점을 전부 다 끝내는, 공여자이며 행운의 공여자가 되어라.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어떤 이에게 뭔가가 부족한 경우 바로 그것을 기부하게 하는 제도를 가졌었다. 너희가 그것을 기부함으로써 그런 형태의 기부는 발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어떤 약점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여자이며 행운의 공여자가 되어라. 너희가 남들에게 아버지의 보물들을 지원해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때는 약점들이 자동적으로 물러날 것이다. 공여자이며 행운의 공여자인 너희들의 강력한 산스카르들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 나약한 산스카르들은 저절로 끝날 것이다.

솔로건: 너희의 약점이 아닌, 너희의 고귀한 행운에 대해 칭송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라.

***** 음 샨티 OMSHANTI *****